

71 シーボルト (P. Siebold 1796-1866)

시보ルト (시-볼트)

화란의

德川幕府 (도쿠가와 막부) 후기에

東亞通商社

(동양통회사)의 일본 총통(상관)의 의뢰에

로 일본에 온 독일인 의사 이리

1823년 자바 횡단기행 통역(나가사키)에 와

서 허위과 진료소록 등의 서양의학서

전달함과 동시에 제라늄 양성하기

까지 했으며 1828년 귀국 때 배가 태풍

으론 파손 하자 거기에 적제했던 시봉
 트의 지숙에 일분의 ~~고산~~ (고산자)로
 불리우는 伊能忠敬 (이노 다다 다카) 가 그린
 일분의 지도라 보존된 뒤 시봉트는 국
 외 추방과 동시에 재입국 금지 처분을
 받았고 이른바 <시봉트 사건> 이란 것이다.
 그는 대단히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
 일본 체류 중 그의 저작인 <일분>은
 비롯하여 <일분동투지> 와 <일분서투지>
 도 출간 했다.

그는 和蘭(화란) 즉, 독 일인 인 데 어 렷음
 개 나 호기심이 많 은 지 1858년 일본과
 화란과의 통상 조약이 맺 어 지 자 1859
 년 다시 일본에 와서 1868년 까지 체재 하
 면서 <江戸参府 参行 (에도 참부 개행)> 과 <시볼
 트 일본 교통부 역사> 등을 저술 했다
 어 렷은 시 볼 트 는 일본의 南化(개화)
 에 크게 이바지 한 5대 인물 중 한 사람
 이 큰 공 해 고 있다
 그는 일본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나

따 에 도 적 지 않 은 관 심 을 표 명 할 다

그 기 대 저 인 <日 本(일본)> 이 런 책 에 서

광 범 한 언 주 를 하 고 있 다

제 이 번 朝鮮(조선)

제 1 장 일본 해 안 에 동 류 한 조선 인 으 로

부 터 들 은 조선 사 령

제 2 장 조선 인 대 마 도 의 일본 사 무 라 이 마

관 인. 부산 의 일본 領 館(상관) 에

서 들 은 정 보

제 3 장 諷 黨(어휘)

제 4 장 韃靼(달조) 해안기 문류하여
 此宗(북정)은 거처 조선정기, 일본에
 귀국한 일본인 어부의 조선 편모기

제 5 장 조선의 제도, 관리 및 신하

제 7 장 일본 문헌에 대한 조인, 중일 관계

제 1 장 조선 반도사 총론

제 2 장 일본 측 사료에 대한 일본과

제 8 장 조선 및 중국과의 관계
 千字文(천자문)
 AD 200년

시-총론은 권말(卷末)에 千字文(천자문)

